

부울경 시·도지사, 대선 공약반영 협력사업 21개 구성

부울경 경제동맹 정책협의회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초광역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이중분권 개헌에 의견일치 확인



(왼쪽부터)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이 14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제3회 부울경 경제동맹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장은 부울경의 순번에 따라 경남도지사가 맡았다. /부산시

부산과 울산, 경남 시·도지사가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약 반영을 건의할 협력사업을 확정·발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은 14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제3회 부울경 경제동맹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장은 부울경의 순번에 따라 경남도지사가 맡았다.

이번 대선 공약 반영 건의 협력 사업은 21개로 구성됐으며 부산과 경남, 울산을 잇는 철도·도로망 구축이 주를 이뤘다.

구체적으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부전~마산간 복선전철 ▲울산~부

산~가덕도신공항 간 광역철도 건설 ▲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설 건설 ▲창업산업선 구축 ▲거제~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 구축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간 간선철도 구축 ▲KTX 경부고속선 울산 지선 신설 ▲거가대로 고속도로 승격 ▲울산~부산~창원~진주 철도 인프라 도입 운영 ▲김해~울산 고속도로 신설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이다.

지역 산업과 관련된 사업, 관광 산업들도 포함됐다.

내용은 ▲초광역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초광역권 도심 융합 특구 지정 ▲차세대 고효율 전력 반도체 실증인프라 사업 ▲수소연료 기반 커뮤티기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추진 ▲동남권 관광벨트 조성 공동 대응체계 구축 ▲국가

녹조 대응 종합센터 신설 등이다. 세 시도지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개헌에 대한 일치된 의견도 확인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 분담을 새롭게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배분하는 이중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로 거듭되는 불행한 역사와 이제는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선의 방법은 개헌안이 이번 대선과 함께 통과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개헌과 방법을 약속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투표가 이뤄지고 실시 시기는 사회·정치적 합의를 통해 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정치가 극단의 대치를 중단하고 국민을 향해 고개 숙일 때”라며 “부울경 시·도민 통합을 위해 나아가 국민 대통합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양산시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1위'

경남 양산시는 2025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8년 만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는 경남도가 매년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평가와 연계해 국가 주요 정책과 도 역점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다.

평가를 통해 각 지자체의 행정 역량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으며, 이에 따라 도 재정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 /양산(경남)=이도식 기자

김해시 가야문화축제에 中·印·日 참석

김해시는 2025 가야문화축제에 국제 우호도시인 중국 다렌시 대표단을 비롯해 주한인도대사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일본 무나카타시 시민대표 등 26명의 해외 방문단이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렌시는 지난해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으로 처음 인연을 맺어 같은 해 11월 국제우호도시 협약에 이어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다렌시 공연단이 가야문화축제 개막식 무대에 올라 중국 전통 경극과 무용을 선보였다.

자매도시 아요디아시와 우호도시 우타르프라데시주를 대표하는 주한인도대사의 방문과 함께 인도 전통무용인 '까탁(Kathak)' 공연이 펼쳐져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해(경남)=이도식 기자

경주시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지원

경주시는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2025년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사업'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본점과 공장이 모두 경주시에 소재하고 공장등록이 완료된 중소기업이며, 총사업비 3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된 기업에 최대 1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경북교육청 중등 수업전문가 239명 선정

경북교육청은 올해 중등 수업전문가 239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업전문가는 2015년부터 경북교육청이 운영해 온 교사 전문성 인증 제도다.

수업연구교사와 수업선도교사, 수업명인의 3단계로 돼 있으며, 매년 3월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 후 4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수업전문가는 연중 실제 수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주요 활동은 연구수업 공개, 수업 컨설팅, 60시간 이상 수업 관련 연수 참여, 교수학습자료 개발과 공유, 학습공동체 활동 등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전남도, 교통안전시설에 370억 투입

교통약자 등 위한 안전시설 확충
첨단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집중'



전남도가 올해 370억원을 들여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강화한다.

전남도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올해 370억 원을 투입해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교통약자(노인·어린이), 보행자, 운전자들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과 첨단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 26개 사업이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비중이 높은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중점을 두고, 관련 안전시설을 집중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에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노인보호구역 19개소, 어린이보호구역 103개소에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고품질 운전자 사고방지를 위한 차선이탈 방지 장치 692대도 지원한다.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119억 원을 투입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4개소, 마을진입로 과속방지시설 54개소, 활주로형 횡단보도 102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스마트 횡단보도 10개소와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13개소 등 최첨단 안전시설에도 15억 원을 지원한다. 운전자의 교통안전 환경도 개선하기 위해 총 136억 원을 투입한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5개소를 비, 회전교차로 10개소, 과속단속카메라 81개소, 시야 확보 표지판 230개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남=양수년 기자 ysn6313@

내달 '영양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열려

산불피해 지역 회복·치유 중심

경북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해, 올해 예정되었던 '영양산나물축제'를 대신해 지역의 회복과 치유에 초점을 맞춘 특별 행사, '영양산나물 먹거리 한마당'을 오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영양군청 앞마당 및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 축제 형식에서 벗어나, 산불 피해를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은 공감과 치유 중심의 특별 행사로 기획하였다.

행사장에는 산불 피해 상황을 공유하는 주제관과 함께, 작은 정성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산불피해 모금 부스가 운영되어 함께 아파하고, 함

께 나아가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영양을 대표하는 봄 산나물을 주제로 한 '산나물전 거리'에서는 싱그러움 향과 맛을 자랑하는 다채로운 산나물 요리가 펼쳐지며,

산나물 판매를 돕기 위한 '고기굽터'에서는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고기 체험존이 운영되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억의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외에도 풍성한 먹거리와 현장 체험, 지역 상인의 직거래 판매 부스 등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구성으로, 함께 나아가는 행사의 의미를 새기고자 한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대구시,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최다실적

최대규모 참여... 상담액, 3420억 달성

대구시는 지난 8~9일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2025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가 참가 기관 수 및 구매·수출·투자 상담액 등에서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유일의 원스톱 종합 비즈니스 행사로 판로·투자·채용 등 기업들의 고충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올해는 종전 최대 규모였던 640개보다 더 늘어난 681개 기업·기관이 참가했으며 상담액도 전년도 2999억원보다 증가한 3420억원을 달성했다.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에서는 삼성, SK 등 대기업·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122개사가 참여해 중소기업 203개사와 786건의 기술·구매상담을



지난 8~9일 대구엑스코에서 '2025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가 열린 모습.

통해 750억원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수출상담회에서는 8개국 22개사 해외바이어 및 26개 전문무역상사가 중소기업 138개사와 346건의 1대1 미팅을 진행해 총 1767만 달러의 상담실적과 665만 달러의 계약추진을 달성했다. 또한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투자설명회에서는 23개 투자사와 32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2423억원의 투자상담이 이뤄졌다. /대구=김준한 기자 kih9@

부산시, '양자 산학협력지구' 지정 박차

부산대 '맞손'... 3년간 약 69억 투입

부산시는 14일 양자과학 기술센터에서 부산대학교와 '양자과학 기술 연구·산업 육성 및 양자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부산대학교 물리관에 있는 양자과학 기술센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산대학교는 지난해 양자과학 기술센터 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10월부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와 부산대학교는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부

산이 '국가 양자 산학협력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업무 협약식과 함께 양자과학 기술센터 현판식, 중장기 사업 발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이 진행되었는데, 시는 3대 전략으로 구성된 '부산시 양자 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비약적 성장, 양자로 도약하는 부산'을 비전으로 하며 '양자기술 연구·산업 육성 특화도시 부산 조성'을 정책 목표로 한다. 2025~2027년 3년간 시비 약 69억원이 투입되며 '부산시 양자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그 내용이 담겨있다. /부산=이도식 기자